

코로나 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



▲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오는 7월부터는 한국 밖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중요사업상 목적이나 인도적 목적 등으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더라도 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14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해왔다. 지난달 5일부터는 한국에서 백

신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해외 출국 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해서는 심사기관(남가주의 경우 LA총영사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한국 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사 후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젊은 층 겨냥 다양한 막걸리 등장

'어르신 술', '아재 술'로 여겨졌던 전통주 막걸리가 20·30세대에게 인기 주류로 떠오르며 주류업체는 물론 음료, 유통업체까지 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이색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1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국의 막걸리 소매시장 규모는 2016년 3,000억원대에 머물렀으나 2018년 4,000억원대, 2019년 4,500억원대, 지난해 5,000억원대로 성장했다.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며 구매층이 확장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다.

이런 가운데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막걸리 구매도 늘었다. 막걸리 매출 중 20대의 비중은 2018년 1분기 3.5%에서 올 1분기 5.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는 5.4%에서 9.3%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확대된 막걸리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를 낮추거나 유산균을 넣는 등 다양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한 업체는 알코올 함량을 1% 미만으로 낮춘 비알코올 막걸리 탄산음료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특 쏘는 청량감을 살리고, 달콤한 맛을 더한 이 제품은 마치 '막사' (막걸리+사이다)와 같은 맛을 구현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는 유산균을 넣은 프리미엄 막걸리를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막걸리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지난 4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만병을 돌파했다. 미국 등 10여 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취준생 59.8% “나는 쇼윈도 취준생”



▲ 직업박람회 모습. 사진=유튜브(강남구청) 캡처

취업난에 지원서를 쓸 곳도 마땅치 않지만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속에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은 취업 의지가 없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척하는 '쇼윈도 취준생'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취업생 1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8%가 쇼윈도 취업준비생(취준생)으로 살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업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이유는(복수 응답) '가족, 지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가 응답률 58.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일자리가 줄어서(43.8%)', '알바 등을 하며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34.1%)', '현재 취업 준비 말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30.7%)' 등이었다.

쇼윈도 취준생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다. 이들에게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자신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쇼윈도 취준생 그룹(30.4%)의 경우, 일반 취준생 그룹(41.5%)보다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자신이 있다'는 답변이 11.1% 낮았다. 또 취업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쇼윈도 취준생 그룹(72.4%)이 일반 취준생 그룹(67.1%)보다 5.3% 높았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취업생 10명 중 9명은 향후 '쇼윈도 취준생'이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또 '어떻게 하면 쇼윈도 취준생이 줄어들지'에 대한 물음에(복수응답), '코로나가 종결(45.6%)', '양질의 일자리 증가(44.4%)', '취업 지원 정책 증가(37.8%)', '취업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변화(21.6%)', '블라인드 채용 제도 확산(18.2%)'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